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모세의 제안

9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 혼자서는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 10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수를 늘리셔서 너희는 오늘 하늘의 별들만큼 그 수가 많아졌다. 11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1,000배나 늘려 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를 빈다! 12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희의 괴로움과 너희의 짐들과 너희가 다투는 것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13 현명하고 통찰력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너희 각 지파에서 뽑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로 너희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14 너희가 내게 대답했다. ‘당신 생각이 좋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움

15 그리하여 내가 너희 지파에서 현명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너희를 다스릴 우두머리로 세웠다. 천부장들, 백부장들, 오십부장들, 십부장들과 지파의 지도자로 삼은 것이다. 16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령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사건이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의 사건이든 너희 형제들 사이의 분쟁을 잘 듣고 공정하게 심판하고 17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며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 가져와 듣게 하라고 했다. 18 그때 내가 너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3 묵상하기

모세는 각 지파별로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 이스라엘 공동체에 조직과 질서를 만듭니다. 세워진 지도자들은 앞으로 각자 맡은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각 지체들이 서로에게 맡겨진 역할을 질서 있게 감당하는 이 모습은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각의 지체가 손과 발 등이 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하고 특출한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받은 은사와 능력대로,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정하고 의롭게 판단하고, 어떤 영적 싸움에서든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분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완성됩니다.

4 적용하기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나 간증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들입니다. 맡은 자리가 크든 작든(15절) 세상과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영적 리더의 사명이 나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혹시 내가 혼자 끌고 가려고 공공거리고 있던 공동체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일을 이제 누구와 함께 나누면 좋을까요?
- 전도나 선교, 교회를 위한 사역들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며 특별한 은사와 간증을 가진 누군가가 할 거라고 미루고만 있던 것은 아닌가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맡겨진 자리에서 영적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열두 정탐꾼을 보냄

19 “그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 산을 떠나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로 향했는데 너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활하고 무섭기 짝이 없는 그 광야를 거쳐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 20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에 다다랐다. 21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일어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망설이지 말라.’ 22 그러자 너희 모두는 내게 와서 말했다. ‘정탐꾼을 아모리 땅에 먼저 보내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지, 우리가 갈 그 성들이 어떤지 보고 돌아오게 합시다.’ 23 그 생각은 좋아 보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았다. 24 그들은 길을 떠나 그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로 들어가 그곳을 정탐했다. 25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과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보고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백성

26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27 너희는 너희 장막 안에서 원망하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것 아닌가? 28 우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우리 형제들이 정신을 혼란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크다. 성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까지 솟아 있다. 우리는 거기서 아낙 사람들마저 보았다고 했다.’ 29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30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하셨듯이 너희 눈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31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같이 너희를 안아 너희가 이곳에 닿을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하시지 않았느냐?’ 32 이 말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33 그분이 너희 여정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가 진칠 곳을 찾으시고 너희가 갈 길을 보여 주셨는데도 말이다.

3 묵상하기

사람은 늘 보이는 것에 자기의 믿음을 두려고 합니다. 출이집트 1세대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 직접 확인하려 했고, 그 땅의 좋은 열매를 보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들 눈에는 너무나 작은 자신들에 비해 가나안 땅이 한없이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은 보지 못한 채 자신의 능력과 처한 현실만 바라보는 백성에게 모세의 격려와 믿음의 말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29-31절). 이처럼 사람은 보이는 것에 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4 적용하기

때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처한 환경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연약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나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 말씀대로 꼭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세요. 나는 너무나 작지만 크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눈에 보이는 것, 눈앞의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망설이는 일이 있나요?
그 일에 대해 내가 취할 믿음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 하나님은 이미 내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일어나 차지할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할 것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상황과 환경을 뛰어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됨

34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진노하시고 위엄 있게 맹세하셨다. 35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36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그곳을 볼 것이니 내가 그와 그 자손들에게 그 발길이 닿은 땅을 줄 것이다. 이는 갈렙이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37 너희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게도 진노하며 말씀하셨다. '너 역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38 그러나 너를 보좌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를 격려하여라.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39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한 그 어린아이들, 곧 아직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또다시 명령을 어기는 백성

40 그러나 너희는 뒤돌아 홍해 길을 따라 난 광야를 향해 가라.' 41 그러자 너희가 대답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 산지에 올라가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무기를 들었다. 42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리로 올라가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적들에게 지고 말 것이다.' 43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에 반역해 교만하게도 그 산지로 행진해 올라갔던 것이다. 44 그 산지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나와 너희를 쳤다. 그들은 너희를 벌 떼처럼 쫓아냈고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너희를 모조리 쳐서 쓰러뜨렸다. 45 너희는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울었지만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우는 것을 돌보지 않으셨고 너희에게서 귀를 막으셨다. 46 그리하여 너희가 여러 날을 가데스에서 머물렀고 너희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3 묵상하기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하는 백성의 청개구리 같은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현실을 두려워하며 절대 할 수 없다고 원망하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시자(35절)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부랴부랴 올라가 싸우겠다며 고집을 부립니다(41절).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백성과는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니 절대 싸우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도(42절)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완전히 패하고 맙니다. 이것이 끝까지 불순종하는 청개구리 같은 사람의 결말입니다. 순종이란, 말씀을 내 마음(내 감정)에 따라 내킬 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내 상태가 어떠하든 지금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4 적용하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존심, 자기 감정만 앞세우던 백성의 교훈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대상이지 고집부리며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만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36절).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도 말씀을 내 감정대로, 내 상황에 따라 골라서 붙들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온전한 순종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백성을 벌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따른 갈렙과 여호수아는 구별하신 것을 보며, 오늘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해야 할 믿음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평소에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다가 일이 잘못되면 그제서야 후회하며 하나님을 찾고 붙잡는 연약한 신앙인은 아닌가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지금 저에게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에서의 자손들(에돔)과 싸우지 말라**

1 그리하여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대로 가던 길을 되돌아가 홍해 길을 따라 광야를 향해 갔다. 오랫동안 우리는 세일 산지 주변을 돌아다녔다. 2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3 '너희가 이 산지 주변을 돌아다닌 지 오래 됐으니 이제 됐다. 이제 북쪽으로 가라. 4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이제 세일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인 에서 자손들의 영토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5 그들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내가 그들 땅은 한 발 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세일 산지는 내가 에서에게 주었다. 6 너희는 돈을 내고 너희가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얻도록 하라.' 7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그분은 이 광활한 광야에서의 여정을 지켜보셨다. 이 40년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셔서 너희는 모자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8 그리하여 우리는 세일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형제인 에서의 자손들로부터 떨어져 지나가게 됐다.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 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에서 방향을 바꿔 모압 광야 길을 따라갔다.

모압과 싸우지 말라

9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모압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자극해 싸우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들의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어 갖게 했기 때문이다.' 10 (거기에서는 에밈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은 힘이 세고 수가 많았고 아낙 사람들만큼 키가 컸습니다. 11 그들은 아낙 사람들처럼 르바임 사람들이라고 불렸지만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12 호리 사람들도 세일에서 살았는데 에서 자손들이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에서 자손들은 마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 정착한 것과 같이 호리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13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일어나 세렛 골짜기를 건너가라.' 그리하여 우리는 그 골짜기를 건너갔다. 14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 골짜기를 건널 때까지 38년이 걸렸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모든 세대의 모든 군사들은 다 진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15 그들이 진영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셨던 것이다.

3 묵상하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게 된 역사를 뒤로하고 다시금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출이집트 1세대에 이어서 그들의 자녀들이 약속의 성취를 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에서의 자손들과 모압 사람들의 땅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돔과 모압 사람들 역시 그 땅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보기에 최선이고 좋은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게 약속된 말씀, 내게 허락된 방법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묵묵하고도 성실한 한 걸음이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4 적용하기

내게 허락하신 자리, 주신 은사들, 걸어가야 할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걸어가는 길이 더 크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이란, 다른 사람, 다른 현실, 다른 방법에 눈 돌리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와 상황, 그곳에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갖지 못한 것에 욕심내고 있지는 않았나요?
- 내 생각, 내 방법이 최선이고 좋아 보여도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나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 감사하며 이끄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암몬과 싸우지 말라

16 백성들 가운데 군사들이 모두 죽자 17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18 '오늘 너희는 아르에 있는 모압 지역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19 너희가 암몬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면 그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자극해 다투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암몬 사람들에게 속한 땅을 주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그 땅을 롯 자손들에게 주어 갖게 했기 때문이다.'" 20 (그 땅 또한 르바임 사람들의 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곳에 르바임 사람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삼숨뎌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21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었고 야낙 사람들처럼 키가 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멸망시키셨고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22 여호와께서 세일에 살고 있던 에서 자손들 앞에서 호리 사람들을 멸망시키신 것과 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호리 사람들을 쫓아내고 오늘날까지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23 그리고 갓돌에서 나온 갓돌 사람들이 가사에까지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던 아위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헤스본 왕 기혼과 더불어 싸우라

24 "'이제 일어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보라. 내가 너희 손에 헤스본 왕인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나라를 주었으니 이제 그와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25 바로 이날부터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 대해 듣고 벌벌 떨며 너희로 인해 괴로워할 것이다.'

3 묵상하기

전투 경험이 있던 출이집트 1세대와 달리 2세대는 전투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1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투 경험이 있는 1세대가 아닌,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2세대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이들은 가는 길에 다투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워서 차지해야 할 땅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싸우러 나가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것도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아무런 전투 경험도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야 할 우리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허락하신 때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오늘 내가 싸울 영적 전쟁입니다.

4 적용하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는 어디인가요? 내 생각에 나는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것뿐인 것 같아 마음이 어렵다면, 연약한 내가 아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싸울 대상을 분별하기만 하면 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살다 보면 포용하고 인정할 상황과, 대적하고 맞서 싸워야 할 상황을 마주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들을 분별하나요?
-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싸워야 할 대상(현실)은 무엇인가요? 그 대상 앞에 나는 어떻게 나아갈까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저는 부족하지만, 말씀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화평 요청을 거절한 시혼

26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 화평을 요청했다. 27 '우리가 당신 나라를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큰길로만 가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침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28 우리가 돈을 줄 테니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파십시오. 다만 걸어서 지나가게만 해 주면 됩니다. 29 세일에 살고 있는 에서의 자손들이나 아르에 살고 있는 모압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 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요단 강을 건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30 그러나 헤스본 왕 시혼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의 성질을 강박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셔서 오늘날 그분이 하신 것처럼 너희 손에 그를 넘겨주시려는 것이었다.

헤스본을 정복함

31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시혼과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넘겨주기 시작했다.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시작하여라.' 32 시혼과 그 모든 군대가 우리와 싸우려고 야하스로 나오자 33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다. 34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성들을 손에 넣었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우리는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다. 35 그리고 우리가 정복한 그 성들에서 가축과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취했다. 36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그 골짜기에 있는 성에서부터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어떤 성도 우리가 차지 못할 만큼 강한 곳은 없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다. 37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너희는 암몬 사람들의 땅이나 압복 강가의 땅이나 산지에 있는 성들은 침입하지 않았다."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 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기도' 로 마칩니다.